

성보 문화재 보존 ‘총체적 부실’

긴급 점검- 불교문화재가 위험하다

- ① 문화재 특별 점검을 통해 본 성보관리 실태
- ② 흔들리는 불교 건축문화재 보존 대책은
- ③ 아직도 부실 위험, 예방적 보존 ‘방재’

우리나라 전국의 문화재 7393여 점을 조사한 결과 반수 이상의 보존·관리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긴급조치가 필요한 보물 이상급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의 비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7393여 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 7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정기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사를 해왔지만 전체 문화재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최하다. 이번 조사는 보존관리, 소방방재, 생물피해(환경미), 유물다량소장처 등 4분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 특히 보존관리 분야에서는 불교문화재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조사에서 A~F까지 보존 등급을 부여했고 전체 문화재 중 정비와 즉시조치가 필요한 D, E, F 등급은 23%인 1683건으로 나타났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의 문제는 심각했다. 보물급 이상에서 관리가 시급한 D 이하 등급을 받은 문화재는 149건으로 이중 불교문화재가 123건(국보 29건, 보물 94건)으로 80%가 넘었다. 국보급

만 해도 불교문화재는 총 68건 중 D 이하가 29건(D 8건, E 21건)으로 42%가 넘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로 석탑 등 건조물을 대상으로 해 야외에 노출된 문화재가 많은 불교문화재가 상대적으로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향후 훼손도 더욱 심각할 것으로 진단됐다.

문화재청 7일 전수조사서

국보·보물 중 정보 80%

‘보존등급 D 이하’ 판정

사찰 32곳은 방재도 엉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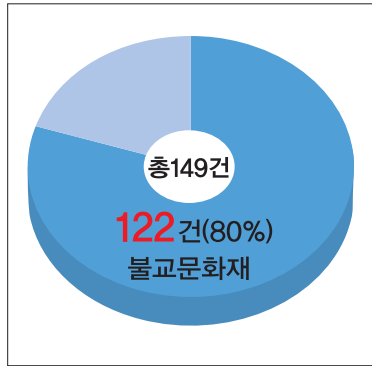
‘불교 자체 보존기구 필요

문화재연구소 역할 확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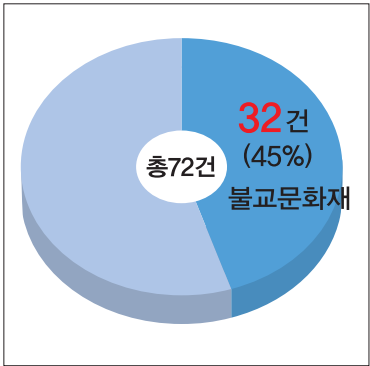
대표적인 문화재로 부석사 무량수전(E등급)의 경우 주석의 부식과 공포재 균열 등이 확인 돼 당장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쌍계사 진감선사 탑비(E등급)는 지난 보수에 사용된 시멘트의 이탈로 2차 오염이 드러나고 침수가 우려되는 것도 지적됐다.

이번 문화재 조사의 시발점이 된 석굴암의 경우 대좌부와 궁륭천장

‘보존 위험’ 국보·보물 비율



‘방재 부실’ 국보·보물 비율



에 균열이 관찰돼 D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 분야에서는 국보·보물·사적급 277건 중 72건이 작동미흡인 C등급을 받았다. 이중 32건이 불교문화재로 예산 수탁사 대응 등 국보급 문화재를 포함해 양양 낙산사, 경주 불국사 등 전통사찰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치부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의를 모아 장기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문화재 관리 기구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현장에 나가보면 국보나 보물이 방치됐다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며 “조계종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사찰·시민단체 등을 연계해 상시 감시·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이번 조사대상 외에도 사태가 심각한 곳이 많다”며 “조사한 팀 별로 조사 수준이 같지 않으며 어떤 부분은 관찰기 식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문명대 성보문화재위원(동국대 명예교수)은 종단 산하 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현재 불교문화재연구소의 경우 수사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재, 진단 등에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소 규모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해일 스님은 “등급이 낮게 나온 성보박물관 등은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오히려 불교계에서는 문화재의 중요성을 살피는 기회로, 종단 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조사내용을 토대로 3대 핵심과제로 ‘예방적 문화재 관리체계 정립’, ‘문화재 안전관리 고도화’,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유형별 방재 점검안내서를 마련하고, 문화재관리사 제도를 내후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한국 스님과 아시아불교도협회 대표 스님들이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10주년을 맞아 봉은사 경내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청소년 교류로 한일 평화 기반 다져”

파라미타,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10주년 맞아

최근 일본의 자위군 행사와 독도 도발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불교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두 나라의 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 이하 파라미타)가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활동을 해온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파라미타는 8월 4일 봉은사에서 10년간 교류를 해온 일본 불교단체인 아시아불교도협회(Asia Buddhist Association, 이하 ABA)를 초청해 ‘한·일 청소년 불교교류활동 10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파라미타 회장 정여 스님, 파라미타 고문 원택 스님, 파라미타 상임이사 법경 스님 등을 비롯해 ABA 이사장 우시오 닛슈 스님 등 일본 스님 10명과 한국 일본 청소년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일본인 학생들은 8월 4~8일 템플스테이와 한국 가정 체험 등 다양한 문화교류활동을 했다.

한·일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시작했다. 파라미타는 월드컵 이후 양국이 서로의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고, 사찰문화 체험을 비롯해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파라미타는 200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일 미래를 향한 공동 프로젝트’ 사업

파라미타 한·일 청소년국제활동 연혁	
2004년 1월	제1회 한일청소년국제교류 무령왕릉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2007년 11월	한일불자청소년국제교류 협약서 체결
2010년 4월	파라미타 대표단 요코사 50주년 기념행사 참여(요코사)
2014년 3월	아시아불교도협회 일한교류실 방안 (부산 여여선원)

한일 월드컵 계기로 교류

10년 간 400여 청소년 찾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체험

명상 불서 번역 日 보급 계획

을 진행, 2004년 1월 ABA에 일본 청소년 파견을 요청했다. ABA는 2004년 1월 5~10일 일본 요코사 청소년 20명을 파견하고 한국 전 통사찰과 백제불교문화관을 탐방하는 등 불교문화 교류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ABA는 2005년 8월, 당시 파라미타 회장이었던 원택 스님과 8명의 관계자들을 초청해 한일 정부가 제정한 ‘한일 우정의 해’ 기념 행사를 일환으로 국제 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친 교류를 통해 정기적인 청소년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한 두 나라는 일본 측이 2007년 ‘ABA 한일 청소년 교류 지원실’을 설립하면서 교류를 정례

화 하기에 이르렀다. 파라미타와 ABA는 10년간 400여명의 한·일 청소년들이 참여해 문화를 교류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성과를 냈다.

김정아 파라미타 기획팀장은 “수년전 행사에 참가했던 인연으로 일본에 유학 한 한국 청년들이 몇몇 있다. 이번에 통역을 맡은 한국 청소년은 교류에 참가하면서 일본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한 친구들”이라며 “일본의 청소년 가운데는 내국에서 한국관광을 안내하는 여행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스님으로 출가하는 등 참가 청소년들은 한·일 불교와 문화를 일리는 참여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파라미타와 ABA는 동남아 불교국가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한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류에 앞장설 방침이다. 대표 정여 스님은 “향후 한일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일 청소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지인을 초청하는 등 참가대상을 확대하고, 한국 불교명상에 대한 지침을 일본어로 번역해 일본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상임이사 법경 스님은 “현재 행사 일환으로 학교와 병원 건립, 식수정화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을 연계하는 해외자원봉사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국 2천여 수좌들 다시 만행을 떠나다

10월 103개 선원 하안거 해제

하안거 해제를 맞아 8월 10일 조계종 8대 총림을 비롯한 전국 제 방 선원은 해제 법회를 봉행했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의 <갑오년 하안거 선사방함복>에 따르면 전국 103개 선원에서 총 2,222명의 대중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스님들은 안거를 마치고 만행에 올라 세상 속에서 수행 정진을 이어가게 된다.

신성민 기자 moto79@hyunbul.com
 (하안거 해제 법어 2면)

불교, 장병 심성·리더십 변화 이끈다

병영혁신위 장성과 실장 참여… “병사들 공감 이끌 것”

최근 구타 사망 사고와 총기 사고로 군내 병영문화에 대한 변화 목소리가 큰 가운데 불교계가 병영문화 혁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조계종 군종교구에 따르면 국방부가 8월 5일 발족한 병영혁신위원회에 장성과 군종교구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병영혁신위원회는 12월 말까지 군 현실을 진단하고,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내놓게 된다. 장 기획실장이 참여한 분과는 ‘병사 심성·리더십

분야’이다. 장 기획실장은 “병영문화는 군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라며 “군종법사들을 비롯해 군포교에 매진하는 모든 분들의 목소리를 모아 일방적인 실법보다 병사들과 같이 공감하는 프로그램 전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종교구는 8월 6일자로 전방부대(GP 및 철책선 경계 부대) 및

격오지 부대를 방문하여 장병들과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지침을 내렸다. 군종교구 지침에 따르면 군종법사들이 장병들과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으로 인정 교육, 상담, 위문활동을 보다 활발히 펼치는 것이다.

군종교구는 “군종들의 본분 활동이 전방활동도 있지만 장병들이 무사히 군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해 심성 순화상당 등을 강화하도록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신비의 돌부처님

부산자비선원

“어째서 이런 일이...?”
 보고도 믿지 못하는 신비의 가피 체험

오여래부처님 화현도량
 부산자비선원

누구나 오셔서 소원을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십시오.
 오여래 부처님이 들려지지 않으면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학봉당 진성큰스님의 40여년 수행결과가 부처님의 가피로 환희롭게 열립니다.

소원따라 이루어지는 오여래부처님의 신묘한 영험

- 다보여래부처님 :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시준비, 고시 응시생, 재반 중 사건
- 묘색신여래부처님 : 취업, 승진, 특남발령, 결혼인연
- 광박신여래부처님 : 부동산 매매 및 전월세, 사업발전
- 이포외여래부처님 : 암·불치병·우울증·병의 등 병고해탈
- 김로왕여래부처님 : 건설·제조·사회복지 등 사업발전

오여래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불기 2558년 3월 25일경 진성 큰스님께서 새벽예불 끝나고 참선 중 출연히 나타나는 큰 노스님이 주장을 쥐신 채 보자기를 스님한테 내밀면서 “이것으로 일제중생을 제도하는데 써라! 중생들에게 큰 빛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진성 큰스님이 커다란 보자기를 받아두고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자루에 들은 돌이 갑작스럽게 황금으로 변해버렸다. 그 후 청도 운문사를 가던 중 계곡 입구에서 아주 불꽃없는 못빛이 단단한 돌을 발견했는데, 이상한 기운이 들어 차에 싣고 와서 황동석재공정에 맡겼다. 그렇게 해서 10kg정도 되는 돌이 다듬어져 왔다. 그 돌을 신중단에 놓고 다기돌을 돌리기 위해 옮기려하자 움직이지 않았다. 돌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던 것이다. 급히 큰스님을 찾아 자초지정을 말씀드려 큰스님 역시 들려고 하자 끔찍을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나?”고 놀라시며 경전과 각종 문헌을 찾아 보시더니 이 돌은 묘색신여래부처님이 화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큰스님께서 묘색신여래부처님과 많은 대화를 하시면서 응답을 주고 받으셨다. 그리고 석재공정에 전화를 하시어 똑같은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석장이 “큰스님, 왜 돌 4개를 더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하고 물었더니, “원래 이 돌은 묘색신 여래부처님 한 분만 오신 게 아니라 다섯 부처님이 오신 것이다. 첫째 다보여래부처님, 둘째 묘색신여래부처님, 셋째 광박신여래부처님, 넷째 이포외여래부처님, 다섯째 김로왕여래부처님이다.” 하시며 “이 모두를 오여래부처님이라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부산자비선원

부산광역시 남구 자비로 41(문현동)
 문현동 배진고등학교 후문 부산우유농협 본점 앞
 지하철: 2호선 문현역 1번 출구 하차, 엘리베이터 이용
 버스: 68, 23, 26, 134, 남구3 / 문현교차로에서 하차

▶ 개방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